



화순전남대병원, 로봇수술 2000례 돌파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최근 다빈치 로봇수술 2000례를 돌파하며 지역의료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사진)

8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수술용 로봇 '다빈치'를 도입한 화순전남대병원은, 2019년 11월 '다빈치Xi' 모델로 교체해 로봇수술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호남지역 유일하게 단일절개장 로봇인 최첨단 시스템 '다빈치SP'를 추가 도입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로봇수술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빈치SP'는 3차원 고화질 카메라와 로봇팔에서 나와 단일절개장을 통해 진입해 수술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수술기기는 3~4개 이상의 절개 부위를 만들지만, '다빈치 SP'는 한 개의 절개장으로 보다 섬세하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또 수술 흉터가 작고 회복 시간도 빨라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병하기자



동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설명회

동신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학교 대정1관에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남개발공사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에는 졸업생 11명을 포함한 총 62명의 학생이 참여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우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개발공사 인사팀이 직접 방문해 직무별 채용절차와 요구 사항, 비전과 근무환경에 대해 소개하고 건축, 전기,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채용 정보를 소개했다.

특히 전년도 신입사원이 직접 실질적인 면접, 취업 준비 팁과 취업 설계 방법에 이르기까지 조언을 아끼없이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내부 조직 문화와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 소개하며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했다. 최동환 기자



전남신보, '탄소중립 실천' 식물 나눔 행사

전남신보보증재단(전남신보)은 식목일을 맞아 순천·목포·여수·광양·나주·해남 6개 지점에서 방문 고객 150명을 대상으로 '식물 키우기 키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최근 전국적인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행사가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신보는 올해 'ESG 경영 마스터플랜 2030'을 수립하고, '전라남도 탄소중립 2050'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자원재순환 물품기부 △탄소중립 팝업북 제작·기부 △해변 환경정화 등 다양한 ESG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다운기자



송원대학교-대아티아이(주), 철도 교육 협약

송원대학교는 지난 2일 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대아티아이(주)와 철도 실무교육 고도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철도 산업 현장의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최신 기술 기반의 교육 협력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송원대 최수태 총장과 대아티아이 이명철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육용 시뮬레이터 및 시스템 기술 지원과 현장 실습·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철도 스마트 시스템 관련 정보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주관한 철도안전·관제시스템학과는 대아티아이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실습 기반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학생들에게 최신 철도 운영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광주환경공단, 기후변화 대응·산불 예방

광주환경공단은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광주제2하수처리장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산불 예방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산불 재난 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핵심 목표로 삼아, 임직원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환경 실천 의지를 북돋는 계기를 마련했다.

2일에는 처리장 출입구 인근에 봄꽃 300본을 식재하고 거름을 주는 '화단 조성 활동'을 진행해 생태 환경 개선과 경관 향상에 기여했다. 3일에는 산림청 자료를 활용한 산불 예방 교육과 함께 실천 서약식이 열렸으며, 이어 처리장 내 유희부지에 자두 나무 등 묘목 31그루를 심는 '나무 심기 행사'도 함께 진행돼 녹지 공간 확대에 일조했다.

총 20여명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해져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최권범 기자



호남대 일자리플러스센터, 서포터즈 발대식

호남대학교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7일 학교상지관에서 2025학년도 JOB서포터즈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JOB서포터즈는 면접을 통해 8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청년정책 홍보 활동 등 2개 팀으로 나뉘어 팀별로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JOB 서포터즈 역할을 설명하고 취업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학과 홍보, 재학생 의견수렴 등 서포터즈 마인드교육 및 팀별 모임을 진행했다.

JOB 서포터즈에는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우선 참여권, 수료증이 발급되며 활동비와 7Star 150포인트가 지급된다.

JOB 서포터즈 관계자는 "많은 재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조선이공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광주청년센터, 협약

조선이공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3일 학교 본부동에서 광주청년센터와 청년고용정책 인프라 강화 및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김승영 조선이공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등 대학 관계자와 김태진 광주청년센터 센터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 관련 홍보 및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기관 및 운영프로그램 홍보, 청년지원정책,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협력 지원 △청년대상 교육 및 훈련정보, 구직역량강화와 청년



광주시의사회, 미얀마 대지진피해 구호 활동

광주시의사회는 미얀마 대지진피해 현장에 서정성 의협부회장이 사)아시아희망나무와 함께 미얀마의사회 부회장, 만달레이 의사회장, 정형외과 의사회장 등과 진양지인 만달레이에서 이재민 구호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8일 광주시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구호 활동을 위해 긴급구호자금 1000만

샤이니 故 종현, 36번째 생일...민호 "언제나 보고싶어"

그룹 샤이니가 멤버 고(故) 종현(사진)의 36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8일 샤이니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종현의 생일을 기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 속 종현은 마이크를 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팬들은 "생일 축하해 종현" "1억 년 지나도 사랑해" "내가 이제 오빠 나이다. 좋은 꿈만 꿔오면"이라고 반응했다.

매년 종현 생일마다 샤이니 계정에는 고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멤버 민호도 이날 인스타그램에 "생일 축하해. 언제나 보고 싶어"라며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옛날 모습에 종현과 민호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편 종현은 2008년 샤이니로 데뷔



해 '누난 너무 예뻐' '산소 같은 너' '줄리엣' '링 디ング' '루시퍼' '드림 걸' '에브리바디' 등 히트곡을 발매했다. 종현은 '데자-부' '종아' 등 솔로곡을 발매하며 싱어송라이터로도 활약했다. 고인은 지난 2017년 12월18일 향년 27세에 세상을 떠났다. 나머지 네 명의 멤버들은 여전히 샤이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